

‘상습침수’ 송산유원지 인근 정비

20여년간 16번 침수·하구관 역류 광주시, 4.5억 투입... 상반기 완료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매년 집중호우 때이면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해온 광산구 송산유원지 인근에 대한 정비작업에 나섰다. 정비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송산유원지는 황룡강과 영산강 합류 지역으로 지난 20여년간 16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또 하절기 집중 호우 때는 하수관의 역류로 시내버스 등 교통 두절은 물론 농경지 침수도 상습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정비사업은 송산유원지 박피마을 인근에 74m짜리 우회배수로와 수중펌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추진되며, 3월 중 착공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송산유원지 활성화는 물론 주변 농경지 35ha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연 시민안전실장은 18일 “그동안 송산유원지 주변은 상습침수 현상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어 왔다”며 “최대한 우기 전에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송산유원지가 안전한 시민 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5555knj@metroseoul.co.kr

주택화재경보기는 봄맞이 가정필수품

기고

정한우 보성소방서장



초목의 싹이 트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위로 나오려고 꿈틀거린다는 경칩(驚蟄)이 지나면서 앙상했던 가지마다 봄을 알리는 꽃망울이 수줍은 듯 감싸고 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가온 봄은 우리의 마음도 설레게 한다. 하지만 봄철은 따뜻한 기온과 강한바람 낮은 습도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에 최상의 조건이 형성되는 계절이다.

소방청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작년하해동안 화재는 4만4178건이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2197명(사망 345, 부상 1852), 재산피해는 총 4969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에서 1만1765건(26.6%)의 화재가 발생하여 991명(45.1%)의 인명피해(사망80, 부상 729명)가 발생했다. 주택화재의 발화요인은 부주의의 57%(6,667건), 전기적요인 21%(2,440건), 기계적요인6%(712건)순이다.

가정 내 가스렌지위 음식물 조리중 발생한 화재 및 주택아궁이에 불을 피우다가 불티 비산으로 주변떨감에 옮겨 붙어 주택전체로 확산된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는 일상 생활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원인들이며,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설치로 초기화재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새벽2시경 보성군 벌교읍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잠들어 있던 노부부는 화재경보기 알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신속히 대피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새벽5시경 보성군 조

성면 주택 옆 비닐하우스 보일러실 화재에서는 화재를 발견한 주민이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렇듯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며, 화재가 나면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는 신속한 피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안전필수품이다.

전국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광판영상소출 등 각종 홍보인프라를 활용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주택용 소방시설 공동구매 알선뿐 아니라 설치와 사용법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택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가장 소중한 안전해야할 공간이다. 주택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도 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가정 따뜻한 봄맞이 대청소를 준비하면서, 물품구입목록 첫 번째 순위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기입하는 안전센스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보성군, 우수 농특산물 판로개척 총력전

군비 1.7억 투입... 전시·박람회 참가 녹차·쌀 등 홍보로 ‘청정보성’ 알리



보성군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일산 컨텍스에 열린 일자리 정책 박람회에서 농특산물 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다.

보성군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처 확보를 위한 다양한 판촉활동을 전개하며 안심 유통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1억7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대도시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 운영과 녹차, 박람회 참가 및 우수 농특산물 수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4일간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에 참여해 보성녹차 무료시음 및 차 관련제품을 비롯한 녹차미인보성쌀, 산야초 등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며 많은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설명절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국 12대 고품질 쌀 브랜드 8년 연속 선정과 10년 연속 전남 10대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 홍보를 통해 청정보성을 적극 알렸다.

지난해에는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등 판촉활동을 지원하여 9억 4천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 28억 원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려 농가소득보전 및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군수품질 인증 공동브랜드 ‘미미보’와 온라인 쇼핑몰 ‘보성몰’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상품을 선보이

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의 ‘가락몰’과 여주시 프리미엄아울렛에서 ‘퍼블리마켓’을 운영하여 수도권 소비처 공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 고객 중심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 운영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는 최고의 상품을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녹차수도 보성의 농특산물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아파트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싹 바꾼다

광주시, 4억 들여 39개단지 휴게실 개선

광주시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18일 시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휴식과 식사 장소가 마땅치 않고 냉난방이나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조례를 마련한 데 이어 사업비를 지원해 본격적인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전용면적 85㎡ 이하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39곳을 선정, 경비·청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추진기로 확정했다.

휴게소가 없는 2곳은 휴게실을 새로 만들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 휴게실 2곳은 지상으로 옮긴다. 또 노후 휴게실 7곳은 증·개축하고 28곳은 시설 개선, 냉난방, 환기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다.

/광주=김남중 기자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업소 과징금부과 ‘적합’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기각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18일 식품접객업소 업주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통기한 경과제품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

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걸음한 과징금 24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행

정처분을 통한 공익이 청구인이 입는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들며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에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한 식품위생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김남중 기자



광주 북구보건소, 임신부·유아 영양평가

광주 북구보건소를 찾은 72개월 미만 유아들이 지난 16일 빈혈 검사를 받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임신부와 유아들을 대상으로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등 영양평가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중·고등학교 11곳서 자원봉사학교 운영

보성군자원봉사센터, 16일까지 신청

보성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19일 벌교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까지 관내 11개 중·고등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학생에게 체험 위주의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봉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나눔 정신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원봉사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활용 방법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는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자원봉사센터(061-850-5087)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문성환 기자